

반도체 지재권포럼 11월7일 서울 개최

특허청은 11월7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반도체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전략에 관한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PCT 국제특허의 출원 및 한국어의 PCT 국제공개어 채택, 중국진출 국내기업들의 중국 지재권보호 방안, 특허분쟁기술조사 및 기술거래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 반도체 구리배선에 관한 최신 특허정보 분석보고도 예정돼 있어 반도체 생산기업 및 특허관련 종사자들에게 지재권보호에 관한 중요한 정보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도체 생산기업들은 막대한 양산능력을 바탕으로 메모리반도체의 공정기술발전을 주도하고 있으나, 부가가치가 높고 기술집약적인 시스템반도체 및 장비기술 분야에서는 기술자립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해외기업과의 특허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특허청 차세대 반도체연구회는 특허분쟁에 따른 기업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지재권을 전략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했다.

현재 국내외 시장에서 분쟁 중이거나 분쟁을 준비하고 있는 반도체분야 기업은 물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 특허경영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은 기자>

<화학저널 2007/11/05>